

# “34세 심창민 담은 첫 솔로앨범...유노윤호 고마워”

### 최강창민, 첫 번째 미니앨범 ‘초콜릿’ 공개 소감 데뷔 17년만에 최초...‘카시오페아’ 헌정 앨범

그림 동방신기 최강창민이 데뷔 17년 만에 솔로 출격을 앞두고 남다른 소감을 밝혔다.

최강창민의 첫 번째 미니앨범 ‘초콜릿’(Chocolate)은 6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전곡 음원 공개되며, 타이틀 곡 ‘초콜릿’ 뮤직비디오도 유튜브 및 네이버TV SMTOWN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특히 최강창민이 솔로 앨범을 선보이는 것은 데뷔 17년 이후 처음이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그가 직접 활동 소감과 목표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6일 밝혔다.

다음은 최강창민의 첫 솔로 활동 관련 일문일답.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발매하는 소감은.**

▶무엇보다 저의 첫 솔로를 기다려주시는 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싶고. 사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은 누구나, 언젠가 오롯이 나만의 색깔로 채워 넣은 나의 색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솔로 앨범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할 텐데 저 또한 이렇게 제 작품을 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

**-데뷔 17년 만에 솔로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예전이었던 ‘어떻게 잘 만

들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보일까’ 라는 생각 때문에 조바심 내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심적인 여유도 생기고, 당연히 부담감은 필수불가결이지만, 그 과정을 즐기면서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어떤 음악을 해야겠다’ 혹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줘야겠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저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17년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제가 느끼고, 제가 할 수 있고, 이 그대로의 나를 무대 위에서 편안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연차가 되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또 17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다. 그 시간을 기다려준 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타이틀 곡 ‘초콜릿’은 어떤 곡인가, 감상포인트가 있다면.**

▶‘초콜릿’은 저의 중저음에서 고음까지, 보컬 폭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멜로디가 담긴 댄스 팝 장르의 곡으로, 캐치한 후렴구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어느 순간 중독될 것이다.

**-먼저 솔로앨범을 발매한 유노윤호의 반응은 어땠나. 어떤 조언을 해줬는지.**

▶아시아시피 저희 둘 다 조언이나 격려를 텍스트로 주고 받는 아들이들한 관계가 아니다. (웃음) 무언 속에서 눈빛으로 주고

받고, 그 의미를 아는 사이다.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윤호 형이 스태프를 뒤편까지 아이스크림 케익을 잔뜩 사서, 친히 방문을 하셨더라. ‘창민이 뮤직비디오 멋지게 만들어주세요’라는 부탁의 의미였을 텐데, 별 얘기는 안하고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돌아갔지만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다. 또 ‘초콜릿’을 들어보고 잘 소화할 수 있는 곡으로 영리하게 잘 선택한 것 같다는 말도 감사하게 해주었다.

**-이번 솔로 앨범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새로운 시도를 하자’라는 포부로 앨범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 듣는 분에 따라 그렇게 느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지금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로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해야겠다는 다짐이다.

**-이번 앨범 수록곡 ‘라이’(Lie)에 가수 청하가 피쳐링으로 참여했는데, 함께하게 된 계기와 소감은.**

▶평소 청하 씨에 대해 보컬도 뛰어나고 퍼포먼스도 출중하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앨범에 피쳐링으로 참여해주셨다. 저도 그렇고, 스페셜들도 ‘라이’를 듣고 ‘청하씨가 함께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고 했거든요. 아쉽게도 녹음하면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곡에 청하 씨의 매력을 고스란히 녹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타이틀곡 ‘초콜릿’을 비롯해 이번 앨범의 작사 작업에도 참여했는데, 작사할 때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얻나.**

▶저는 초콜릿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욕망스러운 단어라고 생각했다. 디저트라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게 되는 중독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나. 그것처럼 마음에 드는 이성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초콜릿이라는 소재로 녹여보고 싶어서 작업하게 됐다.

보통 작사할 때 데모곡에 담긴 단어만 듣고 영감을 얻어 이야기를 꾸려보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곡 전체를 작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초콜릿’도 그런 경우였고, 또는 어떤 아티스트 분이 자신의 아들에게 인생선배로서 조언해주고 싶은 가사를 담아 곡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팬 분들께 힘이 되는 메시지를 녹인 작업물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작사를 하기도 했던 것 같다.

**-이번 앨범의 매력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초콜릿처럼) 달콤한 중독?

**-이번 솔로 앨범 관련 활동 계획이나 목표는.**

▶마음 같아서는 팬 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팬 분들께 좋아하실 것 같은 콘텐츠나 프로모션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



서 준비하고 노력도 많이 했다.

지금 현재 서른 네 살의 심창민을 고스란히 담은 이 앨범이 팬 여러분께서 앞으로 저의 활동, 음악을 기대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에게 현재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제작한 앨범이라, 카시오페아에게 헌정하는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동안 솔로 활동을 기다려 준**

**국내의 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저의 동방신기 팀 활동을 응원해주신 팬 분들께 감사드리고, 더불어 솔로 심창민의 작업물도 기대하고 기다려주시는 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기 내서 이번 앨범을 낼 수 있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닌데 항상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그 큰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



## 지진희·이미연, BBC ‘언더커버’ 리메이크작으로 드라마 복귀

배우 지진희와 이미연이 BBC의 인기 영국 드라마 리메이크작으로 안방극장에 복귀할 전망이다.

6일 뉴스1 취재 결과, 지진희 이미연은 JTBC가 현재 편성을 논의 중인 새 드라마 ‘언더커버’(극본 백철현 송자훈 정혜은/연출 송현욱) 출연을 제안받고 검토 중이다. ‘언더커버’는 지난 2016년 4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방송된 동명의 BBC 드라마 ‘언더커버’를 원작으로 한다. ‘또 오해영’ ‘뷰티 인사이드’로 인정받은 송현욱 PD가 연출을 맡는다.

지진희는 지난해 8월 종영한, 동명의 미국 드라마가 원작인 tvN 드라마 ‘지정생존자’ 이후 차기작으로 ‘언더커버’에 출연할 예정이라 관심을 모은다. ‘지정생존자’에서 장르물 유행 주연으로 활약, 해외 드라마 리메이크 성공 사례를 남긴 바 있어 ‘언더커버’를 통해 또 한 번 리메이크작 주연의 진

기를 보여줄지 기대된다.

특히 지진희는 지난 2018년 3월 종영한 JTBC 드라마 ‘미스터리’에서 김남주와 멜로 연연으로 국내 40대 남자배우 중 멜로와 장르물이 동시에 가능한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던 바 있다. 이에 멜로와 액션이 모두 담기는 ‘언더커버’에서 또 한 번 활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주연 지진희의 상대역은 이미연이 출연을 검토 중이다. 이미연의 드라마 복귀는 지난 2010년 6월 종영한 KBS 1TV 사극 ‘가상 김만덕’ 이후 약 10년 만이다. 지난 2015년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어린 성덕선 역으로 특별 출연한 적은 있지만 드라마 본격 등장은 오랜만이다. 지진희와 어떤 부부 호흡을 보여줄지, 오랜만에 출연하는 드라마에서 더욱 깊이 어린 연기 내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 최희, 의미있는 결혼식...피로연·신혼여행 생략+3000만원 기부

이달 말 사업가와 결혼...오래 알고 지내다 지난해 가을 연인 발진

‘야구여신’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방송인 최희가 이달 말 결혼식을 올리는 가운데 피로연과 신혼여행 비용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6일 최희의 소속사이자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에 따르면 최희는 오는 4월 말 서울 모처에서 비연예인 예비신랑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최희는 양가 가족 및 친지만 참석한 가운데 최대한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며, 피로연과 신혼여행도 모두 생략한다.

특히 최희는 피로연 및 신혼여행을 생략하는 대신 국제어린이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에 3000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가정을 이루는 축복된 순간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널리 나누고 싶다는 본인 뜻에 따른 결정이다. 전달된 성금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이와 관련해 최희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혼소식을 전하게 되

어 조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동안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에 보답하고자 ‘멋진 결혼식’보다 더 의미 있는 곳에 감사함을 전하려 하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최희의 예비신랑은 지인으로 오래 알고 지내온 일반인 사업가로 지난해 가을 연인 사이로 발전해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최희는 결혼 후에도 방송과 유튜브 활동 등을 활발하게 이어갈 전망이다.



배우 지진희와 이미연이 BBC의 인기 영국 드라마 리메이크작으로 안방극장에 복귀할 전망이다. 6일 뉴스1 취재 결과, 지진희 이미연은 JTBC가 현재 편성을 논의 중인 새 드라마 ‘언더커버’(극본 백철현 송자훈 정혜은/연출 송현욱) 출연을 제안받고 검토 중이다. ‘언더커버’는 지난 2016년 4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방송된 동명의 BBC 드라마 ‘언더커버’를 원작으로 한다. ‘또 오해영’ ‘뷰티 인사이드’로 인정받은 송현욱 PD가 연출을 맡는다. 지진희는 지난해 8월 종영한, 동명의 미국 드라마가 원작인 tvN 드라마 ‘지정생존자’ 이후 차기작으로 ‘언더커버’에 출연할 예정이라 관심을 모은다. ‘지정생존자’에서 장르물 유행 주연으로 활약, 해외 드라마 리메이크 성공 사례를 남긴 바 있어 ‘언더커버’를 통해 또 한 번 리메이크작 주연의 진

### ‘라디오쇼’ 개그맨 김준현, 수입? “한우 등심 주2회 8명 사줄 정도”

개그맨 김준현이 식사에 쓰는 비용에 대해 얘기했다. 6일 오전 방송된 KBS 라디오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는 개그맨 김준현이 게스트로 출연해 박명수와 함께 ‘직업의 섬세한 세계’ 코너를 진행했다. 이날 김준현은 ‘명소 얼마를 버냐’는 박명수의 질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식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얘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음식을 많이 먹어서도 그런데 다른 곳에 돈 쓸 곳이 없

다”라며 “이데원에 가면 큰웃 시장이 있다. 명품 브랜드를 사 입고 싶어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준현은 “어떤 식당에 가든 가격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싶은 정도다”라며 “예를 들면 주2회 한우 등심으로 8명 정도 사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해 웃음을 줬다.



### 극장 주말 관객 8만 명...역대 최저

역대 주말 관객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주말 4일과 5일 이틀동안 약 8만명의 관객들이 찾은 극장가에서 11년간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엽문’ 시리즈의 ‘엽문4: 더 파이널’이 박스오피스 1위를 수상 중이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집계 따르면 ‘엽문4: 더 파이널’은 지난 5일 206개 스크린에서 7578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3만1110명을 기록, 박스오피스 1위를 수상했다. ‘엽문4: 더 파이널’은 지난 1일 개봉해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고 개봉 첫째 주 주말까지 5일째 1위를 지키고 있다. 이로써 ‘엽문4: 더 파이널’은 시리즈의 최고이자 최고 타이틀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는 중이다.

‘엽문4: 더 파이널’의 주말 박스오피스 1위는 흥공 및 중화권 영화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또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 구축된 2003년 이래 검자단 출연 작 중 최초로 국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엽문4: 더 파이널’ 측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박스오피스는 숫자보다 현상으로 본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다”며 “이렇듯 코로나19로 어려운 극장가 속 유일하게 전작들의 흥행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는 만큼 시리즈 팬과 검자단의 팬이 탄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검자단의 정통 액션은 퇴짜와 시리즈 마지막 작품이라는 소식에 아쉬워하며 극장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밝혔다.